

OECD/DAC INCAF 회의 결과

개발원조위원회(DAC) 산하 분쟁 및 취약국에 관한 국제네트워크(INCAF) 회의가 2010.2.24-25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취약 및 분쟁국가에 대한 지원관련 INCAF 내 논의 현황을 확인하고, 2010년 작업방향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는 외교부 및 KOICA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 보고하였다.

I. 핵심요지

가. 취약국가·상황에 대한 모범적 국제 개입원칙(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 Situations) 관련 '09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검토

INCAF 사무국은 '07년 채택된 10대 모범적 개입원칙에 대해 6개 취약국가(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DR 콩고, 아이티, 시에라리온, 동티모르)에서 실시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동 원칙 이행 개선을 위한 사항을 권고하였음. 전반적으로 원칙 준수를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성평등 등 '비차별(non-discrimination) 촉진' 원칙이 가장 잘 준수되는 반면, '원조소외국 발생 방지' 원칙은 가장 진전이 더딘 것으로 보고됨. 사무국은 향후 동 원칙 준수 제고를 위해 공여국들간 공동 분석(joint analysis), 취약국가 국가건설을 위한 건설적인 국가-사회관계 구축 및 현지 책임성 제고 지원 확대, 위기관리의 중요성 등을 권고함.

취약국가·상황에 대한 효과적 개입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INCAF 회원국들은 모범적 개입원칙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및 모니터링 지속, 공여국들의 공동 조사(joint survey & research) 확대, 전정부적(whole-of-government) 접근, 취약국 주인 의식(ownership) 강화 중요성 등에 의견을 모았음.

나. '전환기 자금지원(transition financing) 관련 정책문서(안)' 승인

INCAF내 자금지원 및 원조체제 태스크팀(Financing and Aid Architecture Task Team)은 '09년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융통성 있으며 예측가능한 전환기 자금 지원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개발 원조간 혼재 등 전환기의 유동적 상황, △동 전환기 상황에서 공여국들의 위기관리 연구 강화, △Non-ODA 자금 포함 전환기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 지원 규모 파악,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현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이행 체제 개선 등의 중요성을 규정한 정책문서(안)를 상정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음.

다. '분쟁·취약 상황에서 국가건설에 대한 국제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 문서(안)' 승인

INCAF내 평화구축·국가건설 및 안전보장 태스크팀(Peace Building, State Building and Security Task Team)은 '분쟁 및 취약상황에서 국가건설에 대한 국제지원에 관한 OECD 가이드스'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공여국 국가 전략 수립, △철저한 국가-사회 관계 분석 및 국가건설에 대한 외부 영향 모니터링 강화, △포괄적인 개입을 위한 국별프로그램(CP) 기획 및 지원 제공 △프로그램 원조, 공공기금(pooled fund) 등 금융 및 원조지원 방식 지원, △공여국간 OECD DAC 국가건설 가이드스의 공동 준수 등 핵심 목표와 행동을 규정한 정책문서를 제시하면서, 회원국들의 승인을 요청. INCAF 회원국들은 동 문서의 정책 메시지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동 광범위한 정책 메시지의 적용을 위한 우선 시범국가(pilot) 프로그램 실시를 제안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등은 젠더 관점 도입 필요를 제기하였고,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은 전반적인 취약국 상황에 대한 국가건설의 주류화 필요성을 언급, 일본은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및 인적자원개발(HRD) 실행 지원 관련 내용의 추가를 요청함.

라. 'MDG 정상회의에서 분쟁·취약상황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촉구 관련 정책문서(안)' 승인

사무국은 MDG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을 최우선하고, 금번 '10년 9월 MDG 정상회의에서 분쟁·취약상황에서의 도전 과제 논의에 중점을 둘 것을 규정하는 정책문서(안)에 대한 회원국의 승인을 요청함.

마. 2009-10년 작업 추진 현황 및 2011-12 INCAF 사업예산 프로그램(PWB)에 대한 의견 교환(brainstorming)

자금지원 및 원조체제 태스크팀, 평화구축·국가건설 및 안전보장 태스크팀은 2009-10년도 작업 추진 상황에 대해 각각 회원국들에 보고하는 한편, 최근 작성된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프레이밍 페이지 등 보고서에 대한 주요 내용 보고와 함께 회원국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회원국들은

2011-12년간 분야별 추진 필요 작업들에 대해 기초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사무국은 회원국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2011-12년 PWB의 zero draft를 작성하여 추후 회람기로 하였음. 회원국들은 각종 모니터링 및 평가 관련,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타 정책 커뮤니티와 outreach 강화 관련 작업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연구 작업 수를 늘리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노력을 집중할 작업분야를 선택할 필요성을 강조함.

II. 관찰 및 건의

(INCAF회의 참가자의) 금번 INCAF회의에서는 취약 국가·상황에 대한 모범적 국제 개입원칙 등 국제사회의 규범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INCAF 회원국 및 UN, 세계은행 등 다자기구, 관련기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2011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HLF-4를 앞두고 원조효과성 제고 및 원조의 역할 연구차원에서 DAC 신회원국인 한국의 기여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국제대화에 적극적참여) 2008년 HLF-3 아크라 회의 이후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와 수원국 및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공여국이 참여하여 설립된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에 관한 국제적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가 요구됨. 중요 정책 의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 및 전략 수립을 통해 분쟁 및 취약 관련 MDGs 달성에 기여하며 서울 개최예정인 HLF-4을 위한 모범 사례 도출 등이 요구되는 바, 금년 4.9-12 동티모르 딜리(Dili)에서 예정된 Dili 국제적 대화 회의 참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연구조사 심화 발전) KOICA는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형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발,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개발협력방식을 대북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등 취약국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우리나라는 향후 INCAF 취약국가·상황에 대한 모범적 국제개입 원칙 등 관련 원칙의 이행 및 참여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관찰되는 바, 동 정책에 대한 연구 지원 차원에서 향후 취약국가에 대한 연구의 심화 발전을 도모해야할 것으로 사료됨.